
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	2021년 12월 13일(월) 총 3매	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 가족다문화과	담 당 자	• 가족지원팀장 최정희 ☎440-2871 • 담당자 이명숙 ☎440-2876	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올해 ‘인천형 작은결혼식’ 20쌍 탄생

- 특별한 결혼식에 부부·부모교육까지 연계, 행복한 결혼생활 도움 -  
 - 지난해 16쌍 지원, 내년에도 20쌍의 예비부부 지원할 계획 -

인천광역시는 올해 ‘인천형 작은결혼식’ 추진을 통해 20쌍의 예비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.

작은결혼식은 ‘형식’을 간소화하고 부부됨의 ‘가치’를 실천하기 위한 예비부부 지원 사업으로, 인천시는 관내 거주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장소, 스튜디오 촬영 및 드레스·메이크업 비용, 모바일 청첩장 제작 등을 지원한다.

또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비부부 및 부모교육을 연계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.

각각의 커플에 맞게 개성 있는 스토리로 진행되는 결혼식은 예비부부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다. 또한 직계가족을 비롯해 소수의 하객들이 참여하는 작은 결혼식은 감염병 예방

차원에서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.

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 ‘인천형 작은결혼식’ 을 통해 예비부부들 사이에 특별하고 허례허식 없는 결혼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 면서 “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작은 결혼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한편 인천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16쌍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20쌍의 예비부부를 지원할 계획이다. 인천시 예비부부 지원 사업, ‘인천형 작은결혼식’ 은 지역방송(<https://youtu.be/9CIs6ST728Y>)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.

<붙임1> 인천형 작은 결혼식 사진



예식 후 하객들의 축하를 받는 예비부부



혼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예비부부



야외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